

연변연극

새작품선집



연변인민출판사

연변연극새작품선집

연변연극가협회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延边戏剧新作品选集: 朝鲜文 / 李光珠等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7

ISBN 978-7-5449-0399-8

I. 延… II. 李… III. 戏剧文学-剧本-作品集-中国-
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30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115295号

延边戏剧新作品选集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3.125 字数: 357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399-8 (民文)

版次: 2008年7月第1版

2008年7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4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일러두기

무대에서 대사와 연기로 내용을 표현하는 희곡의 예술적특수성을 고려하고 연변지역 독자층 태반이 조선 함경도 이민 후예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보기를 설정하였다.

1. “슴둥”, “슴꾸마” 등 진한 방언적인어특색을 잘 나타내는 종결어미는 원칙상 다치지 않았고 종결어미가 줄어든 상태인 합다(합니다), 그렇재(그렇지 않니) 등도 그대로 두었음을 특히 알린다.

2. 사용빈도가 하도 빈번하여 고치면 정상적열독에까지 영향주는 아이(아니), 임마(이놈아), 늬(놈), 무스게(무엇이), 그러문(그러면), 니(네)는 매개 문장이 시작되는 앞부분에서 나타나면 일차성적으로 전본을 보여서 뒤부분에서 독자 자신이 알고 넘어가도록 하였다.

3. 조선어사전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고 의미전달도 무난한 단어는 괄호안에 그 뜻을 밝혀놓았다.

4. 한시기 생겨난 한어 신조어들이 조선족언어권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것은 레하면 밍바이(明白)→코밀치성 등과 같은것이다.

머리말

중공연변주당위 주요지도자와 중공연변주당위 선전부 주요책임자의 관심하에 《연변연극새작품선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연변희곡집 《불타는 십지가》를 출간하여서부터 꼭 10년만의 일이다. 정말 우리를 격동시키는 경축할만한 대사이다.

조선족연극이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때에 《연변연극새작품집》의 출간은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해야 할것이다. 특히 우리의 연극작가들로 하여금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문예방향과 문예방침을 견지하고 생활에 심입하고 실제에 심입하고 대중속에 심입하여 시대의 주선물을 선양하고 대중들이 즐기는 좋은 연극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게끔 고무추동할것이다.

시장경제속에서 사회발전템포가 가속화되는 이때, 우리 예술가들에게는 사상을 더한층 해방하고 대중의 새 사유, 새 관념과 시대의 새로운 발전, 변화에 깊은 주의를 돌리며 작가 자신의 의식을 시대의 발전과 대중의 수요에 부단히 융합시킬것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의 고속발전, 세계경제, 문화교류의 가속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일체화의 발전은 지역간, 민족간의 문화차이와 문화개성을 존중하고 문화자원, 문화형식, 문화요소, 문화관계의 조절과 조화로운

공존을 요구한다. 여러 예술장르도 그속에서 서로 침투되고 영향주면서 자기의 독특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표현형식의 다양성을 더 풍부히 하게 된다. 때문에 연극예술창작도 부단히 새로운 양분을 흡수하고 연극속에 기타 예술의 새로운 형식을 융합시켜 연극예술형식의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 연극예술인들이 시대의 물결속에서 새롭게 발전할것을 기대한다.

연변문련 부주석 박동근

2008년 4월

■ 차례 ■

일러두기 · 1

머리말 · 2

제1부 연극소품

김정권/ 침묵전쟁 · 3

주덕진/ 허수아비 · 15

김정권/ 안궁환 · 22

김정권/ 국제전화 · 27

김정권/ PC방 뒤골목 · 35

김율규, 정문주 작 리근화 개편/ 음양대전 · 43

주금파/ 닭사돈 · 49

차순복/ 안해와 남편 · 57

김학송/ 남작못 · 66

전순자/ 가두주임 · 74

김경호/ 장모님의 소망 · 83

제2부 연극

김영, 최인호/ 금개구리 · 95

허강일/ 사랑에 지친 녀인 · 164

제3부 소품

리통칠/ 장과부 · 213

림시국장 · 223

김학송/ 아파트 · 232

허두남/ 남매간 · 242

최중철/ 내거 삽소 · 249

제방뚝 · 255

배워주오 · 263

선녀와 나무꾼 · 271

제4부 황당소품

주금파/ 고향마을 큰 잔치 · 283

제5부 음악무용연극

김학송/ 댄스를 추는 아이들 · 299

제6부 음악연극소품

오성복/ 부부 · 349

제7부 장막연극(유지컬)

리광수/ 사랑의 샘 · 359

제1부 연극소품

★ 연극소품 ★

침묵전쟁

극본/ 김정권

- * 인물: 남편, 안해, 춘미(딸, 중학생).
- * 곳: 객실.
- * 무대에는 소파와 전화가 있다. 소파뒤에는 벽을 상징하는 세트가 놓였고 그 좌편은 부부방으로 드나드는 출입구로 하고 우편은 딸의 방으로 드나드는 출입구로 한다.
- * 막이 열리면 남편 좌편으로부터 기지개를 펴며 객실로 나온다.

남 편: 이 안까이(안해를 이르는 함경도방언) 사흘까지도 투항 아니 하구 아이방에 가서 자며 아이(아니) 말할 예산인가? 흥 그렇다구 무슨 내 먼저 말을 할줄 아니? 누가 이기는가 두고보자. 춘미야 춘미야. 지금 몇시라구 아직두 자니? 오늘 학교에 안가니?

춘 미: (눈을 비비며) 오늘 일요일인데?!

남 편: 그렇지 오늘 일요일이지.

춘 미: 야! 미내(하나도)! 잔것 같지 않다.

남 편: 뭐? 미내 잔것 같지 않다구? 야 어제저녁에 또 늦게까지 공부

했니?

춘 미: 야, 누기(누가) 공부해서 곤하답니까? 그 조그만 침대에서 어머니까지 와서 자니 두번씩이나 떨어지고나니 못 잤단 말입니다.

남 편: 야, 그러면 어째 너 네에미를 내 칸에다 툇구지(쫓아내지) 못 하니? 야 어째 그런 눈치도 모르니?

춘 미: 야, 아버지 보기 싫어서 아니 가겠다는거 어쩍니까?

남 편: 뭐? 아버지 보기 싫다구? 아이 저 안까이... 아이 그런데 이 집에서는 아침을 아니 하는가? 아 그래 일요일은 단식투쟁인가?

춘 미: 야, 내 어떻게 아침을 합니까?

남 편: 내 누기 너를 하라니? 저 니 칸에 있는 골이 큰 녀자 보고 하라지.

춘 미: (방문앞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예 일요일은 단식투쟁인가 하며 아침을 하라 한다.(합니단의 준말 아래도 같음)

안 해: 애, 춘미야 니 그 남자하구 말해라. 밥가마에 밥이 있다고. 랭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덩혀먹으라 해라.

춘 미: 아버지, 어머니 말하는게 밥가마에 밥이 있고 랭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덩혀먹으라 합니다.

남 편: 무시게(무엇이)? 먹으라구? 저게... 에그그... 에그, 내 원래 붙었던 정도 다 떨어진다! 니 아니면 내 무슨 굶어죽을줄 아니? (자기 방으로 퇴장)

춘 미: 여러분 보았지 예! 야, 내 정말 시집살이입니다. 어째 셈이(철이) 다 들었다는 어른들은 저렇습니까? 한달에도 몇번씩 티각태각하며 아이들처럼 꼬디를(심술을) 써서는 침묵투쟁이다 단식투쟁이다 하니 아이 어간에서(그사이에서) 시집살이 하는건 내가 아니구 됩니까? 옳다. 내 오늘 저 골이 큰 량반 버릇을 톡 떼놓겠습니다. 먼저 철이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련

애하는것처럼 하구 우리 집에 전화를 걸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네 화해를 아니하구 되거나 하겠소? 옳지 전화를 해야지. (전화를 걸려다가) 아니다. 이러다가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딱 발각이 되면 아니되는데. 옳다 나가서 해야 되지.(퇴장)

안 해: (나오며) 애 춘미야, 춘미야, 너두 커피 마시개(마시겠니)?
... 아이 애가 어디 갔는가? 흥 오늘도 내 먼저 말을 걸려니 하는 모양이지? 흥! 어렵도 없다!

* 이때 남편 커피란 말을 듣고 나와 소파에 앉는다. 남편이 커피를 풀어달라고 말을 하려다가 삼켜버린다. 안해는 그 눈치를 알고 보라는듯이 짹짹 소리를 내며 마신다.

안 해: 야, 오늘 커피 맛있다야. 후후 (남편이 참다 못해 종이에다 글을 써서 안해에게 준다.) “커피를 풀어올 것” (그것을 본 안해는 코웃음을 치고는 종이에다 회답을 써준다.) 자력갱생!

남 편: 뭐 자력갱생? (이때 전화벨소리가 울린다. 서로 자기가 받겠다고 하다가 끝내는 남편이 송수화기를 진다)

남 편: 여보세요. 네 네? 네 잠깐만요.(남편이 전화를 들으면서 글을 써서 안해에게 준다.)

안 해: 뭐? 어떤 남자가 찾는 전화? (안해가 송수화기를 빼앗아 든다.) 여보세요. 전화바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렇게 합시다.

남 편: (남편이 열받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야, 문일이야? 응, 내다 응, 아무 일 없다. 응, 내 좀 있다 전화 할게 응. 야 빨리 놓자. 빨리(남편이 나온다.) 예 꼭 가겠습니다. (송수화기를 놓는다)

* 전화벨소리.

남 편: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안해도 종이에다 글을 쓴다)

남 편: 뭐? 어떤 녀자가 찾는 전화인데(송수화기를 빼앗아든다.)? 여보세요. 전화 바꾸었습니다. 어이구 어찌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렇시다. 네, 네.(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안해는 뺨이 나서 딸방으로 들어간다)

* 이때 딸이 등장.

남 편: 야, 너는 어디 갔다 왔니?

춘 미: 저... 저... 저기 상점...

남 편: 애 자꾸 그렇게 다니지 말구 방에 들어가 공부나 해라. 응.

춘 미: 예!

* 이때 전화소리가 난다. 안해가 방에서 나온다.

남 편: 응, 내다. 응, 야, 야 아니된다야. 오늘 우리 가시아버지 생일이 돼서 내 가지 못하겠다. 응, 응. 됐다 응...

춘 미: 어마나, 어머니, 저 아버지 거짓말 쓰는걸 보시오. 아바이(할아버지) 생일이라구...

안 해: 애, 춘미야. 내 다리 아파 저기 앉겠는데 저 남자하구 말해라. 저쪽에 앉으라구.

춘 미: 아버지, 어머니가 다리 아파서 여기 앉겠는데 저 남자하구 아니 아버지하구 말해람다. 좀 저쪽으로 앉으라구 해람다.

남 편: 한 사람이 앉을 자리는 넉넉하다고 저 녀자하구 말해라.

춘 미: 어머니, 한 사람이 앉을 자리는 넉넉하다고 저 녀자하고 아니 어머니하구 말해람다.

안 해: 그 남자와 붙어앉기 싫다고 해라.
 춘 미: 아버지하고 붙어앉기 싫다 해람다.
 남 편: 싫으면 그만두라 해라. 나도 저 여자 옆에 앉으면 닭살이 되는게 아슬하다!
 안 해: 뭐? 아슬(아슬)하다구? 내 먼저 아슬(아슬)하다구 그래라.(딸 방으로 들어가려 한다.)
 춘 미: 야, 들어가지 마시오. 내 중간에 앉을게.(셋이 앉는다.) 재미 있지 예 재미있지? (반응이 없으니 딸이 뺑이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 전화벨소리—

남 편: 여보세요. 네 잠깐만요. 애, 춘미야.
 춘 미: 내 전화입니까?
 남 편: 아니다. 저 여자 전화인데 아까 그 남자와 무슨 관계있길래 이렇게 질기게 자꾸 전화를 하는가 물어봐라.
 안 해: 무슨 남자인데 상관입니까? (빼앗으려는데 남편이 전화를 끊는다)
 남 편: 당신 똑똑히 말하오. 저 남자 무슨 남자요?
 안 해: 어째 무슨 남자인데 상관입니까? 어째 남의 전화를 끊습니까?
 남 편: 똑똑히 말해, 누구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당장 끝이라는거.
 안 해: 당신한테 아까 전화 온 여자는 누구입니까? 당신 먼저 말하시오.
 남 편: 니 먼저 말해라.
 안 해: 당신 먼저 말하시오.
 남 편: 니 먼저 말해라.(말다툼)
 춘 미: (운다) 정말 아버지, 어머니 계속 이럴 내기입니까? 나도 그러면 집을 나갑니다 예? 남들은 보시오. 은혜네는 오늘 아버

지랑 어머니랑 같이 산보 간다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뭐입니까?

(울며 방으로 들어간다.)

남편, 안해: 애, 춘미야, 춘미야 (문 두드린다)

* 전화벨소리—

안 해: 여보세요. 미스터 김? 춘미를 찾는다구? 예 미스터 김이라면
우리 춘미 안다구? (남편이 전화를 빼앗는다)

남 편: 무시게? 누기요? 네 누기야? 어째 대답을 아이하니?

춘 미: (달려나오며) 내 전화입니다. 주시오. (전화를 빼앗는다) 미
스터 김? 어디세요? 만남다방에서요? 네, 옷을 갈아입고 곧
나가겠습니다.(들어가려 한다)

남편, 안 해: 뭐야? 누기야?

춘 미: 내 일에 상관 마시오.

남 편: 애, 어떤 남자야?

춘 미: 연애하는 남자입니다.

남편, 안해: 엉? 연애하는 남자?

남 편: 여보, 이게 무슨 소리요?

안 해: 글썽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춘 미: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터 날 상관 마시오, 내 예, 학풀 그만
둘가 합니다.

남편, 안해: 뭐야? 애! 니 정신이 있니?

안 해: 야, 니 이재(제) 몇살이라구 학교 아니 다니고 연애하겠다는
게야? 야, 이게 정신 나갔구나.

춘 미: 글썽 날 상관 마시오.(방에 들어가 문을 걸건)

남 편: 당신 아이를 어떻게 건사했길래 저 모양이요? 양?

안 해: 당신은 저 아이를 어느만치 건사했길래 아이가 저 모양이 됐
습니까?

남 편: 여자아이들이라는것은 엄마 건사해야지 그래 출근하는 이 애
비 건사해야 하는가?

안 해: 그래 저 엔 내 딸이구 당신 딸은 아닙니까?

남 편: 아니, 내 과장이라는게 단위에 일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자를 틀어쥐고 사상교육할 사이 있소?

안 해: 예! 사업합네 하고 여자를 데리고 다니고 술 마시고 마장 놀
고 사우나에 다닐 시간은 있어두 딸을 교육 할 시간은 없어서
정말 이몸이 불어나게 피로하겠습니다.

남 편: 그래 당신은 출근입네 하구 무슨 동창이요 무슨 령도요 하면
서 밤에 몇시에 들어오구 밥이랑 그렇게 제때에 잘해서..

안 해: 예구 검정개 돼지 흥 본다구 당신은 한달에 몇번이나 저녁에
10시에 들어온적이 있습니까?

남 편: 무시게? 검정개 돼지 흥? 네 이제 말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안 해: 다시 하라면 못할줄 알구 검정개 돼지 흥! 검정개 돼지 흥!

* 이때 춘미 화장을 요란스럽게 하고 나온다.

남편, 안해: (명해진다) 야, 춘미야??

춘 미: 이제부터 어머니, 아버지 날 절대 상관 마쇼 예. 난 가겠습니
다.

남편, 안해: (막아서며) 야 부모 상관 아니하면 누가 상관하겠니?

춘 미: 내 오늘 집에 들어올것 같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마시오 예.

남 편: 안된다. 그건 절대 안된다.

안 해: 그래 안되고말고.

남 편: 너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응?

춘 미: 예? 내 언제부터 변했는가? 내 변한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핍박에 의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편, 안해: 무시게? 핍박에?